

여자원생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학대 의혹 광주 보육시설

다른 보육원생 여러명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켰다

“폐쇄병동 간혀 지옥같은 생활... 인권위 신고했지만 도움 못 받아” 보호자 없는 아이들 골라 입원 거래 의혹도... 강도높은 수사 필요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육생을 학대했다(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그동안 다수의 보육원생을 사실상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 일부 정신병원들이 과도한 경쟁속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들 수백만원씩 속직 '몸값'을 주고 연고가 없는 요보호아동(고아)을 입원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사법당국의 강도높은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YWCA 솔빛타운 시설 등에 따르면 YWCA 산하 광주 모 보육시설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보육원생은 공식 확인된 숫자만 초등학교 4명, 중학생 1명으로 총 5명이다.

하지만 해당 보육시설 원생들 사이에선 같은 기간 추가로 중학생 2명 등 10명 이상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보육시설에선 부모나 친인척 등 보호자가 없는 이른바 '고아'들만 골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유독 학대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해당 보육시설에서 살던 중 정신병원에 두차례나 강제 입원됐었다는 A(여·20)씨를 지난 3일 광주 동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현재 도서관 사서로 근무중인 그녀는 인터뷰 도중 여러차례 눈물을 글썽이는 등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마저도 힘든 모습이었다.

1998년 태어난 뒤 해당 보육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2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나 친인척 등 보호자가 전혀 없다는 A씨는 “2013년 가을께 갑자기 Y병원(현

제 폐업)에 6개월간 강제입원을 당했다”면서 “보육시설에서 엄마로 불리는 직원들을 따라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간 폐쇄 병동에 입원 당했다”고 말했다.

6개월 여를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겨우 퇴원을 한 A씨는 또 다시 6개월여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고 한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로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전화를 받은 인권위 직원은 이름과 보육시설의 위치 등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 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했다”면서 “보육시설에서 불이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기를 내 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현 사회 시스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때 해당 보육시설 생활했던 B(19)양도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씨는 “2014년 어느 날 A 언니가 입원했던 Y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다”면서 “보육원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정신병도 없었는데, Y병원에 입원해 조울

증약 등을 먹으며 매일 반복되는 자유가 없는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다”고 울먹였다.

현재까지 정신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원생도 있다.

지난 5일 오후에 만난 C양은 나주시의 한 정신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여느 10대 소녀처럼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던 C양은 “보육시설은 생각하기도 싫다. 오히려 지금 있는 요양병원이 훨씬 편하다”면서 “현 원장이 부임한 이후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내가 왜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과거 C양을 직접 돌봤다는 해당 보육시설의 전 종사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옆에서 지켜본 C양은 밝고 착한 아이였다. 물론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도 아니었다”면서 “아마 시설내 학대 등으로 큰 아픔이 생긴 듯 하다”고 울먹였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부모나 친인척 등 보호자가 한명도 없는 요보호아동이라는 점이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도 이를

항의할 보호자가 없다는 점에서 보육원과 정신병원간 암묵적인 거래 등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한 간호사는 “일부 정신병원은 환자 1명당 수백만원씩을 주고 환자를 서로 사고 팔기도 한다”면서 “특히 젊고 가족이 없는 고아의 경우 안정적으로 환자 확보가 가능하고, 타 병원에 팔기도 판매가 장 선호하는 환자 유형”이라고 했다.

광주 YWCA 솔빛타운시설 관계자는 “해당 보육시설 아동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정신병원과 보육시설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인권위에서도 폐업된 Y병원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강제로 입원된 데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해명을 듣기위해 광주 YWCA, 해당 보육시설, 광주YWCA 사무총장, 보육시설 원장 등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제자와 불륜 조교수 광주지법 “해임 정당”

대학원생 제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조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가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5년 이 대학 조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원생 B(여)씨를 지도하는 이 과정에서 B씨와 1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을 위반했다며 2017년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했고,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대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A씨의 행위로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던 점, 이러한 A씨 행위는 대학교수로서 체면이나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그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처 받는 아이들

아동학대 사범 지난해 5456명으로 4년새 12배 급증

아동학대 사범이 4년 사이 1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사죄)은 5456명으로, 전년보다 19.1%(876명) 늘었다.

2013년 459명 수준에 머물렀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4년 새 12배 수준으로 폭증한 수치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범(약식기소 포함) 수도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사범 수는 3298명으로, 2016년 한 해 접수사

범 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한다면 올해도 아동학대 범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학대 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범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회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등불들의 불씨를 끄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저유소 탱크 폭발 화재 7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승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무안 주택 냉동창고서 70대 숨진 채 발견

지난 6일 낮 12시에 무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 냉동창고에서 A(여·7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창고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남편 B(75)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점심 준비를 하러 나갔다가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아 찾아 나섰는데 창고에서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전화 왜 안받아” 화김에 여성 집 방화 60대 구속

광주광산경찰청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좋아하던 여성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6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57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A(여·

64)씨의 1층 주택(80㎡)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명의 119구조대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화재 당시 주택에 사람은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박씨는 A씨 등 2명

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헤어진 뒤, A씨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당시 주택 2층에 있던 거주민에게 불을 지를 테니 피하라고 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좋아하던 A씨가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화가나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의식불명 70대 구한 택시기사·경찰

○성당에서 나눠 준 떡을 먹고 호흡 곤란을 느낀 70대 할머니가 택시에서 의식을 잃었으나, 풍암지구대 경찰들과 택시기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구사일생.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63)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소재 한 식당 앞에서 “목에 딱이 걸렸다”며 병원행을 요청한 B(여·70)씨가 택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택시 상황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위급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며 운행을 이어갔다는 것.

○당시 택시의 이상한(?) 운행 모습을 목격한 풍암지구대 김봉수팀장, 조현우·김정훈 경장은 심각성을 직감하고, 순찰차로 에스코트해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봉수팀장은 “당시 교통정체가 심하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난 뻔 했다”면서 “택시기사의 제재정은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3028	1	여주시 남면 두모리 1372 56㎡	답	6,031,6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축1축사부속토지
2018타경 3318	1	여주시 화양면 홍주리 1451 2009㎡	전	79,35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79,351,000
2018타경 3714	1	여주시 읍촌면 상봉리 1001 2884㎡	답	132,087,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32,087,200
	2	동소 1018 1505㎡	답	88,92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88,929,000
	3	여주시 읍촌면 활산리 산26 4066㎡	임야	221,597,000	221,597,000
2018타경 4199	1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728 1590㎡	답	18,246,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순행행사1회로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733-1 133㎡ [물건번호1:백희동지분2/7전부, 매각에서 제외되는지외건물있음]	답	18,246,000	
	3	동소 730 387㎡ [백희동지분2/7전부]	답	16,160,000	16,160,000
2018타경 4502	1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84-1 759㎡	전	15,483,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5,483,600
2018타경 4564	1	여주시 읍촌면 취척리 산251 903㎡ [일부토지 인접지외일단오이음[축양용]]	임야	46,053,000	46,053,000
2018타경 4748	1	순천시 상사면 용암리 산158 7041㎡	임야	186,928,400	일괄매각, 체외의 동소 산 162 11802㎡, 체외의 관정및관수시설1식, 비닐하우스 등 2181주, 관리서 60㎡
2018타경 4809	1	광양시 옥곡면 옥곡리 산264 4689㎡	임야	201,627,000	일부현황도로로이중중, 201,627,000
2018타경 4861	1	여주시 삼산면 덕촌리 산184-9 2281㎡	임야	10,036,400	10,036,400
2018타경 50574	1	보성군 보성읍 과산리39 3289㎡ [양원촌지분1/2전부, 공유자우선순행행사1회로제한]	답	14,640,50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4,640,500
	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17 501명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5,772,800	연고미상분묘소재지취득자격증명요, 35,772,800
2018타경 51133	1	동소 442-2 1522㎡	전	74,515,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74,515,500
	2	동소 442-1 1333㎡	전	27,625,000	매각제외지외건물있음, 27,625,000
2018타경 51874	1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227-1 221㎡	대	27,625,000	매각제외지외건물있음, 27,625,00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2.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3950	1	순천시 도량동 206동 7층 705호 [연향동, 중흥리원시빌] 59,874㎡	아파트	138,000,000	138,000,000
2018타경 4137	1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30-40, 102동 2층 20 [미평1호 [보성정미아파트] 84,371㎡	아파트	97,000,000	97,000,000
2018타경 50697	1	여주시 미평1길29, 302동 2층 207호 [미평1호, 권인아파트] 55,20㎡	아파트	51,000,000	51,000,000
2018타경 51270	1	광양시 논소4길65, 제106동 제19층 제1905호 84,981㎡	아파트	205,000,000	205,000,000
	2	광양시 논소4길65, 제106동 제19층 제1905호 84,981㎡	아파트	205,000,000	205,000,000
	3	광양시 논소4길65, 제107동 제13층 제1305호 84,981㎡	아파트	205,000,000	205,000,000
	4	광양시 논소4길65, 108동 2층 202호 [미평1호, 광양중마우림빌딩아파트] 118,432㎡	아파트	285,000,000	285,000,000
2017타경 10920	1	고흥군 고흥읍 등림리1084-12 1843㎡ 체외의 관상수 [관리지번:1086-4, 1084, 1084-13]	답	314,526,490	일괄매각, 목축1-4, 관상수, 목축1, 3, 4, 체외의건물포함, 목축5, 6, 건축물대장과건축물허용도상이, 목축10동시비닐하우스및골포연장은 평가미제외
2018타경 1985	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84-2 476㎡	답	21,84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1,848,400
2018타경 2216	1	여주시 연동동 47 509㎡ 체외의 후박나무 45주 동소 60 790㎡ 체외의 후박나무 919주 [물건번호1:포항원소목도시자연공원내대소채외연벌채, 굴취반출승득제한]	전	23,26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평가제외된대소채외연벌채, 굴취반출승득제한

● 공판 부당성의 여의 없이는 심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요를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본당인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공표자의 우선(매수권)인사상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신청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표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각결정일: 2018. 10. 22. [월] 10: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1. 입찰장에 비추어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액,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고 봉투에 투입하여 넣는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0.1%]에 해당하는 공표기간에 해당하는 자기합의 또는 연공을 증명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입찰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계약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금만을 상대에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4.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의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공표기간 납부보증금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금, 가압류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까지 지급금의 앞소금을 위해서는 등본제외와 지방공공채를 납부한 후 등본제외수입확약서 및 등본제외수입확약서 지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증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납하여 제출하면 등본이 즉시 출력이 된다.
9.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별도 공고하고, 채무자, 소주자 또는 대항제정은 부동산 매수신청서 및 대항제정서로 인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1. 매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날로부터 7일을 이내에 지급된다.
2.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인원이자, 비담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로 가능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소유권이전 및 인도
4. 매각대금 납부보증금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금, 가압류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까지 지급금의 앞소금을 위해서는 등본제외와 지방공공채를 납부한 후 등본제외수입확약서 및 등본제외수입확약서 지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증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납하여 제출하면 등본이 즉시 출력이 된다.
9.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별도 공고하고, 채무자, 소주자 또는 대항제정은 부동산 매수신청서 및 대항제정서로 인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2018.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